



## 「LPG용기 재검사주기 연장」 유예없는 전면시행이 바람직

한국LPG가스공업협회 손 병 현 부회장

우리나라의 현행 용기 재검사주기는 용기제조기술 및 품질과 성능의 현저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36년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공급비용 상승은 물론 잦은 검사로 인한 용기의 안전성마저 저해시키고 있다.

### 〈 주요국의 LPG용기 재검사 주기 〉

	15년 미만	20년 미만	20년 이상	※25년간 재검사
한국 ('73~)	3년	2년	1년	12회
일본 ('98~)	5년		2년	6회
구미국가	10년			2회

※ 20kg용기 1개의 검사비용은 10,500원, 총 1천여만개 용기중 약 55%는 매년 검사

최근 12년간 LPG용기 자체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'96년에 발생한 2건에 불과, 전체 유통용기가 약 1천만개임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확률은 극히 낮은 수치이며, 국내외 사례 및 안전성검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.(한국가스안전공사 보고서)

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검사주기의 연장(1년 이상)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.

다만, 시기 및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수익성 등을 고려,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업계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.

### 〈정부의 재검사주기 연장안〉

		제조년수별 재검사주기			3년간 시행유예 용기
		15년미만	20년미만	20년이상	
현행		3년	2년	1년	
정 부 안	1안	현행보다 1년씩 연장			
	2-1안	5년마다		2년마다	'88년이전 제조용기 (20%유예)
	2-2안	"		"	'91년이전 제조용기 (56%유예)
	2-3안	"		"	제조후 15년 경과용기 (77%유예)

재검사주기 연장은 과도한 검사비용을 계속 부담해 온 LPG사용자에 대한, 「정부의 시의적절하고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조치」가 될 것이며,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연평균 318~372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.

현재 업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용기관리비는 55~60원/kg 선으로 마진의 50%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일부 지역에서는 80~90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용기재검사주기 연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.

따라서 시행시기와 방법에 있어 업계간의 합의도출도 중요하지만, 수익감소를 우려한 일부업계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정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「정책의 최우선을 LPG사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」에 두고, 가스안전공사의 연구보고나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재검사주기 연장은 '유예 없는 전면시행'으로 하루 빨리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.

지금 LPG업계 및 LPG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신발 끈을 다시 조이고 업계 모두가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.

## 협회 주요 활동

4월

4. 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송용 에너지체계 용역관련 회의</li> </ul>
4. 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에너지안전 자문단 간담회 조찬모임 참석 - 가스안전 법률(액법 및 도법) 개정내용 및 후속방안 협의</li> </ul>
4. 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송용 LPG 연료품질 용역관련 현장조사 참석 - 탱크로리의 충전소 이충전 과정 및 충전소 시스템 현장조사</li> <li>● 택시유류면세카드제 문제점 지식경제부에 건의문 제출 - 카드수수료 인하, 보조금 산정시 실제리터 수 반영, 세금에 대한 수수료 세액공제, 거래카드신용카드로 교체 등</li> </ul>
4.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실과 업무협의</li> <li>● 에너지안전 자문단 간담회 참석</li> </ul>
4.1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프로판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면제 법안 조속히 국회통과되도록 건의</li> </ul>
4.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프로판발전특별위원회 개최 - LPG용기재검사주기연장, DME혼합연료 시범사업 등 협의</li> <li>- 프로판발전특별위원회 조병관위원장 선임</li> <li>● 액법체계정비 킷오프 회의 참석 -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부터 LPG관련 조항 이관, LPG의 독립적 위상 강화</li> </ul>
4.1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</li> </ul>
4.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장학금 전달 - 충전업계의 사회적 책임 도모를 위해 택시업계에 이어 장애인 단체에 장학금 지급</li> </ul>
4.2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한국LPG가스공업협회 대구협회 총회 참석</li> </ul>
4.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일본LPG업계(日석유산업신문사 주관) 협회 방문 - 우리협회와 간담회개최, 한일LPG업계 교류회</li> <li>- 송내C충전소(S-OIL), 라니세인트엘, 칠보콤포지트 견학</li> </ul>
4.2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택시업계(법인, 개인, 노동조합)와 업무협의</li> </ul>

## 협회 주요 활동

-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. 6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가스신문 창간 20주년 기념식 참석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액법체계정비 연구용역관련 회의 참석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1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자문회의 개최</li> <li>- 수송용연료체계개편 및 천연가스치량 대응, 용기재검사기간연장 등 협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13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자동차용 LPG연료 품질기준 회의 참석</li> <li>● 재검사기간 연장관련 우리협회·재검협회 회장 회동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14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LPG용기 재검사기간 연장 관련 회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18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송용연료체계 개편 용역 관련 회의</li> <li>- 배기가스 테스트 방법 등 협의</li> <li>● 신한카드사와 수수료 인하방안 및 카드제 개선방안 협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1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전국 시·도 협회장 회의 개최</li> <li>- 용기재검사주기 연장 및 액법시행령/시행규칙 개정안 협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2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한국석유관리원 출범 및 C선포식 참석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2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LPG소형용기 도입 관련 회의 참석</li> <li>● 도법개정안(주성영 대표발의)관련 LPG업계 건의서 제출</li> <li>- 지경부, 지경위원장실, 지경위입법조사관, 주성영의원실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2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등유 LPG로의 연료전환 협의</li> <li>- LPG수요창출을 위한 보일러 등유 ⇒ LPG로의 전환 방안 협의</li> <li>● LPG용기재검사주기연장 전면시행 필요성 전문신문 기고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26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프로판발전특별위원회 회의 개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28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택시업계(개인택시·법인택시연합회, 노조) 협회 방문</li> <li>- 택시유류면세카드제 및 LPG관세인상 대응 등 협의</li> <li>● LPG용기재검사주기 연장 관련 재검업계와 협의</li> <li>● 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</li> </ul> |

5월

## “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장학금 전달 ”

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장학금 전달



협회 손병헌부회장(우측)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속 윤희규군과 유영신양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.

한국LPG가스공업협회(회장 : 유수륜)는 LPG충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일환으로 '08년도 협회중점사업으로 계획·추진한 “한국LPG가스공업협회 장학사업”을 통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(회장 : 박덕경)에 장학금을 전달했다.

협회는 당초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LPG 대량소비자인 택시업계와 장애인단체를 선정하고, 지난 3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(회장 : 박복규)에 장학금을 전달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장학금을 전달했다.

장학금 수혜자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속 한양사이버대학교 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지체3급 윤희규군과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유영신양이 선정됐다.

협회는 앞으로,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,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해당단체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.

협회는 이번 장학사업을 통해 매년 해당 단체의 임직원 및 단체 소속 조합·회원의 자녀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, 향후 협회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사업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